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천국일로 완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시편 13: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총신교회 THE WEEKLY CHŒ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직분자 바르게 세우기

공예배 및 집회 참석, 바른 헌금생활, 성실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매년 말에 이를 살펴 권고할 예정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것과는 달리 순수 봉사직이다. 여기에는 다른 이권이 절대적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의 직분이 명예직과 같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심지어 명예직상, 명예권사라는 직분까지 생기는 형편이 되었다. 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애석하게 여겨서 직분자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금년에도 우리는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려고 한다. 이들은 교회의 향azon을 지어 더더욱 철저를 기하여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봉사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기기에 신앙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되겠다. 즉 최소한도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 및 집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헌금생활(실질적 또는 월정헌금 등)을 바르게 하는 사람, 각 부처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특히 권사의 경우 24 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한다.

아울러 매년 말에 기존의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을 살펴보고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 및 집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고, 헌금생활(실질적 또는 월정헌금 등)을 바르게 하지 못하며,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특히 권사의

경우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면하여 직분을 맡기지 않고도 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직분이 철저한 봉사직이며 따라서 직분자를 바르게 세울 때 교회와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고오묘한 월요일 / 3월 30일 특별공요집회

주님과 함께 걸었던 금요일 저녁 나팔, 그리고 성찬

3주간 연속되어졌던 하나님나라 선포주간에 선포마차 영혼을 깨우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성(聖)금요일의 '나팔'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한 '성찬식'! 하나님께서 총신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우리는 점점 뉘씩되어지는 아름다웠던 영적 유산들을 새롭게 맛보며, 우리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은혜로 되돌려주시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감격들을 어떻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으랴!

시간이 흘러 마침내 금요일인 '주'의 날이 도래해될 때,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맺었던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게 되리라. 그 날에는 우리가 영원히 주의 거룩한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힘겨게 복음의 나팔을 불아야 하리라. 멈추지 않고 배부르는 주의 거룩한 식탁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날려 주시고, 세상 땅 끝까지 가서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하리라.

신앙칼럼

진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짜는 마음들로 가지, 거기서도 진도하나라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보내시어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눅 28:19-20)라는 위대한 지상명령을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와 모든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도하야 주의 종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 골라지 이르러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주의 종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이니 복음을 무시한 채, 세속적인 가치와 속박 그리고 십자가 없는 인간들의 세상방법으로 교인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종회에는 21세기기를 맞이하여 강단에 서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말씀으로 지난날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말씀에 굳게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요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속하여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이 구원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총신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러 종과 상용가로 나가지 사역을 강권하여 데라라고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과 수요일에는 물론, 금요찬전 집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 주권전도와 교구별 지역전도, 태산 전도 그리고 노아를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직능전도부의 군진도, 경찰전도, 교정전도, 실업인전도, 의료, blind, 하인, 학인, 이며, 문신자도 등등 다양한 분야별 전도를 통하여 복음 속한 민족복음화의 사명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령 이상의 단기전도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는 회개가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진도와 선교사역을 우리 다같이 동참합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민족복음화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역사가 우리 총신교회의 전도와 선교사역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 하영 (전도, 전도위원장)

*다음주 필자는 감사위원장 이명호 장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창 33:17-23)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일 -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다(창 33:3).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인하여 애를 쓸 비로와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인하여 흥해를 목지함이 간직되어, 하나님과 인하여 공에서 생장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그들에게 자꾸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면, 진정으로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힘도 없이 공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지 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멀리하시니 이유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신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다. 그것은 그들의 자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너희는 나의 곧은 백성인 줄 내게 충로(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리라"(창 33: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막대한게 한신 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로 나의 곧은 자식을 드러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믿어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지옥한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금송자지 하나님' -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던 바로 그 시각에, 안개에도 이스라엘을 '금송자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이'는 너희를 애를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금송자지에 반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뒤뉘었다(창 32:1-6). 진실로 이스라엘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은혜를 잊은 자들이었다. 오,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가장 마를 바인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 해 주려고 금송자를 만드는 일에 앞장 선 사람이 바로 '이'라는 자식이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기쁨을 주려고 죄를 잡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의미는 현대만 '금송자지'를 또 다시 만드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기득한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명의 대산이다. 마틴 루터가 죽음에 이르는 세상의 색은 물음 마시게 하는 자이다. '이제 내야 사람들에게 줄게 하라? 하나님께 줄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러?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랴'(갈 1:10).

성령을 내리시고 모세의 모세와 노아 -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한 행위가 얼마나 패역한 사건이었는지 알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놓고 이스라엘의 최상권을 위임 받고의 기도를 드렸었다(창 32:31-3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돌리시기에 나타내셨고도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그는 계속하여 자비를 구하며 자신들을 통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다(창 33:15-16).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또 고통을 받게 하신다(창 33:15-16).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사람의 영광이나 인간적인 목욕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만을 구하시며,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어떤 영광도 내게는 영광을 주지 못 하였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은 기쁨,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려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기쁨을 얻어들이고 금송자지를 요구하는 그 인간적 자라가들과 영광과 국치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쁘고 있는 일인가? 그래서 자치히 명백하고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기쁘고 싶다고 하는 일인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 주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예수님이 믿기 위하여는 자들이 구하는 거룩한 기도이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놀랍고 축복된 일이 또 어디 있었는가? 구원의 기도와 영적 목적인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버리는 것이야말로 구원 거부하야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십자가의 깊은 비참, 충고 목욕이 왜곡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반대로 신자로서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일인가? 지금의 기쁨을 놓는 것이 최미라야 장차 영광과 보람이 매우 대량할까 되며 되는 일인가? 그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설마는 일인가? 고전 13:12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 -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경배무로와 열드섯 죽구의 우승에서 찾려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금송자지'를 만들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에게 보여주시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창 37:4). 사도바울이 보았었던 '큰 사'역 역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10:8).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라, 그의 영광을 사모하라, 그러하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되게하여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온 세계의 날을 맞이하여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 말함이 내게 가파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온 구원이자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골 1:8).

Two very different people

(Ruth 1:14)

*And they lifted up their voice, and wept again:
and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but Ruth clave unto her.*

Due to a local famine, Elimelech took his wife Naomi and his two sons, named Mahlon and Chilion, to Moab. Elimelech died and his two sons married Moabite women. After ten years, Mahlon and Chilion died, leaving Naomi with two daughters-in-law, named Orpah and Ruth. Naomi decided to go back to Bethlehem, her home country. She asked that her daughters-in-law not follow her, but instead return to their own homes and marry again. Both daughters-in-law cried. Naomi further explained the hopelessness of their situation with her, in regard to the custom of levirate marriage, by which the brother of the husband who died childless marries the widow. Naomi was too old to have more sons, and even so the wait would be too long. Both daughters-in-law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again: and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but Ruth clung to her" (v. 14). This scene appears to be a beautiful and moving moment. Both daughters-in-law act like they are truly sharing in the suffering of the situation. We have to give credit to both for their outward expressions of affection. The result of this tender and touching meeting ended in two very different decisions. One woman left Naomi and the other "clung" to her. This meeting appeared to show two loving and caring daughters-in-law, but Orpah kissed Naomi good-bye and Ruth clung to her.

Orpah kissed Naomi. Her kiss looks like a beautiful expression of love, saying, "I love you Mom, good-bye". It appears like she really cares. She kissed the old woman as a farewell to heading back to her own people. Orpah thought about it. Why should she follow this old woman? She didn't have a husband, this woman was going to a different land, so why should she make any sacrifices? She thought that for her and Naomi this was the best way to separate. Her decision was selfish, but appears reasonable, beautiful, and politically correct. People like to make these kinds of decisions. They make sense, are smart, and everyone is happy. Nothing more is required. Orpah's heart was already back to her own house. She acted like a descendant of Lot, following for a time but then separating, just like Lot separated from Abraham. This lady left Naomi. She returned to her own god, her own home, "Behold, your sister-in-law has gone back to her people and her gods; return after your sister-in-law" (v. 15). Orpah's decision made her really comfortable. It was an easy decision. She had hope in her home land.

Ruth's attitude was different. She realized there was no hope, but she has deep, deep love for Naomi. In her life there is no selfishness at all. She didn't want to kiss Naomi; she wanted to suffer and sorrow with Naomi through her son. Until her death, she refused to leave. She confesses love. Orpah moved backward but Ruth moved forward. Ruth chose to go with God's people. She chose to go to her mother-in-law's hometown. Let me ask you, do you really follow Jesus Christ? Do you know Jesus Christ's first lesson of education? It's deny yourself! Don't forget that. Ruth stuck with Naomi. In her heart she didn't mind taking the cross, the burdens. She had faith. She had hope in a hopeless situation. Her mother-in-law's God was her God. If Naomi was to die in Bethlehem, she wanted to die in that place too. She refused to leave her mother-in-law. She confessed before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Thus may the Lord do to me, and worse, if anything but death parts you and me" (v. 17).

What is the result of selfishness? Selfishness always takes away the blessings of God. Like Saul, the spirituality of God disappears. When you have selfishness in your mind you can't receive the blessings of the kingdom of God, you get only earthly,

worldly things. Selfishness can't open spiritual gifts, but it can open worldly ones. In selfishness you lose the blessing. When Jesus took temptation why did He suffer? The devil knew he hadn't eaten for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tempted Jesus by asking Him if He had the power why not turn the stones into bread (see Mt. 4)? That's selfishness—the idea of not suffering. Selfishness always makes you go back to your own sinfulness. Selfishness takes you away from God's plan. It takes you away just like it did to Lot, Esau, and Pontius Pilate and returns you to worldly living. Jesus said,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Mt. 16:25). Amen. Endurance goes hand-in-hand with sacrifice. It's different than selfishness. For Ruth there is a wonderful, eternal future. She has the opportunity to become the ancestor of the Messiah.

Let's learn from these two different persons. In our life, we have to face these kinds of situations. In becoming a Christian, do you want to go the easy way? Do you want to kiss Jesus and then leave? Or do you want to stick with Him in suffering and endurance. Indeed, there is an abundance of emotional love when you come to the Lord. It's a beautiful meeting. Sadly, there are too many Orpah's in this world. Look at Proverbs 18:24. "A man of many friends comes to ruin, But there is a friend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When you fail and your friend fails you, that friend cannot prosper when you succeed. In other words, if you fall down and your friend doesn't help you, when you stand in success your friend won't be able to help you either. It's exactly the same with married life. You can't separate until you go all the way. Self-centeredness and sacrifice are two different things.

In our church we have two different situations. We have a lot of Christian leaders. Some want to make good relationships by wisely and properly escaping the cross one way or another. They like to yell at each other and gain respect without the cross, without Jesus, without true devotion. Actually,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leaders who take the cross and those who don't. It'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heaven and hell. The Bible says,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Rev. 2:10). Amen. Orpah came late but she wanted to leave first. She chose the sweet music; the comfortable, peaceful, and respectful life. She chose enjoyment now. The pastors without Jesus never preach about repentance. They never preach the harsh realities of kingdom life. They never mention the importance of evangelizing the poor countries and taking care of orphans. They're the ones who always get the money, fame, and worldly things by taking off the cross and enjoying human life. But there are the pastors who come early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hem is worshipping the Lord. They continually pray and don't mind if the worship service is a bit long. They like repentance sermons. They sacrifice and endure, and their life preaches God's sermons.

My dear friend, Jesus suffered. He always went the suffering route. He sided with the poor people. He sacrificed until His death on the cross for the poor sinner. How about you my dear friend? Which side are you on? Do you want to kiss Jesus and go backwards, or do you want to go all the way through the narrow gate taking the cross and following Jesus Christ with your whole heart!

아주 다른 두 사람

(룻 1: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룬은 그를 붙좃았더라”



김성완 목사

두 사람

유다 땅에 지역적인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엘리엘렉’은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엘렉은 죽었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십 년이 지난 후, 말론과 기론 역시 죽었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룬만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그녀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죽은 자의 형이나 아우가 대신 결혼하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것마저도 소망이 없는 처지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이 늙었고, 심지어 그것을 기다리는데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룬은 그를 붙좃았더라”(14절). 이 광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표현됩니다. 두 며느리는 진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함께 겪어온 것이지만 행동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표현된 두 사람의 시어머니에 대한 연정을 믿어안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모임의 결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입맞추고 나오미와 작별을 하였고, 룬은 그녀를 좃았습니다.

되돌아오는 오르바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입맞춤은 “어머니를 사랑하오, 안락히 계세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오르바는 정말로 나오미를 돌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신의 죽음에다가 위해가 노모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오르바는 연로한 시어머니를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남편마저 죽었고 시어머니는 다른 땅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헤아리는 것이 자신과 나오미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심은 이기적이었지만, 매우 이성적이고 아름다우며 정략적으로 올바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고, 재치 있으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이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룬의 후손처럼 행동했습니다. 룬이 한 때는 아브라함의 따랐지만 곧 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삼기던 삶과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라 내 동생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나니 너도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15절). 오르바의 결정은 그녀를 진실로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자신이 살던 땅에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앞을 향해 걷는 룬

룬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마음 깊이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곳에서도 이기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룬은 며느리로서, 고통과 슬픔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출생 때 나오미의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뒤돌아서 돌아갔고, 룬은 앞을 향해서 걸어나갔습니다. 룬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믿고, 시어머니인 고향으로 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이 결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예에서 가르치신 첫째 되는 교훈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부린하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룬은 나오미에게 자신을 붙들고 땀과, 룬의 마음은 십자가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신성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국 가운데서 소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면, 룬은 같은 장소에서 죽기를 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룬은 시어머니에게 떠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는 나도 죽으 거기 장사지낼 것이라. 만일 내가 의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찌하여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까”(17절).

희생의 대가

이기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기심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들을 얻게 될 뿐입니다. 이기심은 영적인 은사를 허락 받지 못하게 하며, 세속적인 사람으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왜 그분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을까요? 마귀는 예수께서 사십 일 주야를 금주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만일 내에게 능력이 있다면 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느냐? 그 요구함으로써, 예수를 시험하였습니까(4장 참조). 고난을 피하려는 생각,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언제나 우리를 인간의 취약한 본성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멀리멀리 태어날도록 합니다. 이기심은 여러 번을 ‘룬’과 ‘엑사’, 그리고 ‘빌라도’가 저지를 것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세속적인 삶으로 되돌려놓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영으로리라”(16:25). 아멘, 인생은 희생과 맞물려 옵니다. 그것은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룬에게는 놀랍고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가지 태도

이렇게 다른 두 여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경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정에서, 결코 편한 길을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께 입맞추고 그분을 떠나시켰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인내 속에서 그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고 싶으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올 때에는 풍성한 감성적 사랑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는 오르바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깐 18장 24절을 보십시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이 실패할 때 친구는 여러분을 버릴 것이며, 여러분이 성공할 때 그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만일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돌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성공의 길에 들어설 때면, 여러분의 친구는 실패한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돌지 않고서 할 것입니다(실제로 실패한 친구를 버리는 일과 절투성으로 성공한 친구를 외면하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남편의 실패를 비난하기 쉬우며, 남편의 성공에 대해 아내를 자신을 축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길을 걷기까지는 그분과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과 희생은 분명히 다른 두 종류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 상황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리하게 십자가를 적당히 모면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나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그리고 진실한 헌신 없이 존경받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붙여지는 지도자들과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 사이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아멘. 오르바는 늦게 왔으나, 가장 먼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유혹과 인락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향락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 다음에 얻는 복지사는 결코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의 생명의 영적인 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성과 고난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멀리 던져버리고 향락적인 인간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인생과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는 복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조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성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희생과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의 혼재를 전합니다.

선택

사망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의 옆에 계셨고, 천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예수께 입맞추고 뒤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

제15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강만수**

나이 47
교구 14
봉사 부서 임버누령안대원
신교실행위원

번호: 1

**구원섭**

나이 54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교구간사

번호: 2

**권영주**

나이 50
교구 1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할렐루야 찬양대원

번호: 3

**김언희**

나이 51
교구 1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안내

번호: 4

**김용조**

나이 53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5

**김을필**

나이 48
교구 8
봉사 부서 교구 간사

번호: 6

**김진옥**

나이 51
교구 4
봉사 부서 베드로전도회장
회계부원

번호: 7

**김태식**

나이 45
교구 6
봉사 부서 요한전도회장
외선부교사

번호: 8

**남용승**

나이 49
교구 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장년3부 교사

번호: 9

**노태경**

나이 60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안내

번호: 10

**류기명**

나이 50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벤찬양대원

번호: 11

**문연식**

나이 49
교구 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신혼가정교사

번호: 12

**박광래**

나이 58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할렐루야 찬양대원

번호: 13

**박광식**

나이 50
교구 6
봉사 부서 장년3부교사

번호: 14

**박석두**

나이 54
교구 11
봉사 부서 중등1부교사

번호: 15

**박우현**

나이 48
교구 4
봉사 부서 할렐루야
찬양대원

번호: 16

**박종울**

나이 42
교구 14
봉사 부서 대부교사

번호: 17

**박종학**

나이 51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18

**변해수**

나이 61
교구 1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차량관리부

번호: 19

**송영준**

나이 55
교구 17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20

**신용한**

나이 54
교구 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중등2부교사

번호: 21

**엄복섭**

나이 52
교구 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베드로전도회장

번호: 22

**오재일**

나이 55
교구 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신혼가정교사

번호: 23

**윤석규**

나이 55
교구 9
봉사 부서 차량관리부

번호: 24

**이광국**

나이 49
교구 7
봉사 부서 중등2부교사

번호: 25

**이기숙**

나이 63
교구 16
봉사 부서 헌경위원
예배안내

번호: 26

**이보신**

나이 48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제가족부교사

번호: 27

**이상범**

나이 46
교구 1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28

**이상복**

나이 48
교구 9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29

**이상석**

나이 46
교구 4
봉사 부서 외선부교사

번호: 30

**이승우**

나이 49
교구 12
봉사 부서 장년3부교사

번호: 31

**이철**

나이 55
교구 1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회계부

번호: 32

**이홍우**

나이 50
교구 4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33

**임연수**

나이 40
교구 10
봉사 부서 교구간사
요한전도회장

번호: 34

**임채봉**

나이 59
교구 13
봉사 부서 장년1부교사
마술전도회장

번호: 35

**장석윤**

나이 49
교구 5
봉사 부서 중등부 교사

번호: 36

**장용희**

나이 52
교구 2
봉사 부서 유년부 교사
심로암 찬양대원

번호: 37

**정영덕**

나이 45
교구 11
봉사 부서 심로암 찬양대원

번호: 38

**정태동**

나이 50
교구 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39

**조문수**

나이 49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대학부교사

번호: 40

**조영구**

나이 47
교구 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소년부 교사

번호: 41

**최대환**

나이 63
교구 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장년2부 교사

번호: 42

**최만우**

나이 60
교구 9
봉사 부서 예배안내

번호: 43

**한만교**

나이 61
교구 17
봉사 부서 장년2부 교사

번호: 44

**헌승조**

나이 59
교구 5
봉사 부서 마술전도회장

번호: 45

찬양하는 이유

김근 대 (고등부)

살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입술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고등부 찬양집회를 드리고 잠시 쉬는 도중 전도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대야, 너는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생각하는 찬양..... 간단하지만 막상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초등부 때부터 찬양대에서 봉사했지만, 찬양을 왜 하는지 그리고 찬양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길을 걸으며 혼자서 찬양을 흥얼거리곤 합니다. 방길의 적막한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지요! 요즘은 로마서 16장 19절에 기록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체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찬양 가운데 자주 묵상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이 잘만하면 되고 악한 일에는 아주 약삭빠른(?)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많은 반성을 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에 저는 찬양을 '후대용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외우고 있고,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성경을 읽지 못할 상황에 있어 항상 크리스천의 본분을 깨우쳐 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찬양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호흡이 허락되는 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저의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김슬미나 (고등부 2)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나름대로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며 정만 단 일 주일 만이라도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빠졌다는 나를 보게 되었다.



첫날 새벽기도에 나가 자신의 '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또 다시 나에게 실망했다. 딱 내 이야기였던 것이다. 솔직히 새벽기도회에 나간 것도 난 고등부 임원이기여, 내가 임원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에 참석했던 것이었다. 진정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려겠다는 마음보다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이 더 앞선 것 같아 부끄러웠다.

고등부 2학년이 되어 고등부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솔직히 난 교만함에서 빠져 있었다. 거저서보다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할 때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했고, 진정으로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였다. 한편으로는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괴로웠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너무 저처서 임원직을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말게 하라 함이니라"(요 15:16).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라는 보잘 것 없는 존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나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러 계소사"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

고등부에서는 4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삼아 3학년부터 2학년, 1학년 순으로 매주 학년별 전도를 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이 만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께 부끄러워 쓰임 받기 원한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

박철 홍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등학생에게 '청소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에 그들의 사고의 틀은 제법 깊지만, '청년'이라는 틀을 적용하기에 그들의 사고는 아직도 미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신앙적인 면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라니'(엡 4:13)라고 기록하며 그 앞에 '우리가 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는 교사고 그들은 나의 제자다'라는 구조적인 이해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나의 동반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기에 나는 후자에 더 주목한다. 자신보다 굳건한 믿음을 지닌 학생을 만나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위기감을 느껴본 교사라면 이 마음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지체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주일 아침 8시, 나는 고등부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한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오면 여섯이 있고, 6시 반에 나오면 좀 급해요'라며 멧째게 웃어 버리는 동훈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라며 기쁨을 표하는 상혁이, '전도사님, 찬양해요'라며 찬송가를 뒤적이는 민석이. 그들을 마주하면 나는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궁금해진다. 사실 기도회 시간은 마련해 두었지만, 이른 시간 때문에 기도 모임이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기도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하여 특별히 모임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은 인원이지만 이 모임은 지난 3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주 5분 정도 늦게 예배실에 도착한 나는, 이미 십여 명이 슬미의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하였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시작한 기도회였지만, 그것은 나의 오만이었다. 나는 세무일 이들의 모습 속에서 참미함까지 감탄산으로 나아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 그들과 맞닿은 손에서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기도회의 '인도자'에서 이들과 함께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선다. 오늘날 나의 주일은 기도의 동반자들과 함께 아침을 깨우며 이미 시작되었다.

눈·라·우·신·주·의·이·름

2. 모사 (사 9:6)

조선시대에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을 '책사'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을 '모사'라고 불렀다. '저희로온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모사'는 주로 '상담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부모·형제·친구나 연인, 혹은 전문적인 상담자와 상담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상의, 즉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지표가 돈이나 명예라면 돈이나 명예가 전문인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할 것이고, 그저 외롭지 않게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사회학이나 심리학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겠지만 우리의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와 상담해야 한다.

왜 예수그리스도가 가장 합당한 상담자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합당하다. 그렇다. 그는 우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표류하거나 방황하도록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는 그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실므로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합당하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수고하고, 고생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항하게 하고 억누르는 경험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이 가장 큰 두 가지 이외에도 예수가 상담자로 합당한 이유는 많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며(엡 4:15), 우리를 격려하시며(요 14:1), 오래 참으시고(요 16:12),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다(요 17:20).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상담할 수 있는가? 아라는 것이야 기도를 하면 되지만 어떻게 대담을 들을 수 있는가? 먼저, 말씀으로 상담할 수 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생각해보라. 또 영으로 상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종종 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대담해 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대담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조원을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라. 이스라엘이 거둬들여 불순종에 빠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뜻을 알리실 때 감사를 받으라. 우리의 상담자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열중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인생의 결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는 그의 이름이 모사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사]

선교부 연합활동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가 다양한 신학과 교리적 배경을 지닌 교파형 교회였음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 보았다. 따라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본국 교회 선교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신 피선교지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선교사 연합공회이다. 이같은 사업은 장로교와 감리교에 의해 주도되었다.

장로교의 경우, 이미 1882년 '장로교 공의회'를 조직하였다. 장로교 공의회는 선교에 관한 사항을 서로 협조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인 협의체였다. 이후 1905년에 장로교의 4개 선교부, 감리교의 2개 선교부가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그것이 한국복음주의 선교회연합공회이다. 이 연합공회에는 그 기능이 단순한 선교사 협의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개신교회'에 대한 강한 의도를 표방하고 나타났다. 연합공회의 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했고 장로교나 감리교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대신 '대한예수교회'라는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처럼 1905년에 설립된 연합공회에는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대한예수교회'를 조직하려는 강한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교리적인 일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합 구조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바람에 1910년에 이르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비록 한국에서 통합된 하나의 교회로 '대한예수교회'를 창출해 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연합공회에는 선교 사업에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성서번역 사업과 문서사업은 물론이고 몇 가지 새로운 연합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장로교와 감리교는 따로 발간하던 정기간행물 및 신문을 통합하였고, 별도로 발행해 사용하던 찬송가 통합작업도 추진하였다. 이 외에 교육과 의료사업에 있어서도 연합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 그리고 1903년에 시작된 기독교청년회(YMCA) 운동도 장·감 연합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만은 교파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 장로교와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과 신학교로 정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의 각 교파 교회들이 정치적 면에서는 상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정치적인 면에서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 운동에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이후의 한국 기독교는 교파적 교회로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다움원 진승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찬송은 에드가 페이지 스타이스가 1876년에 작사한 것으로서,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보여서 보냈는데 그가 찬양 동역자인 생키에게 작곡을 부탁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

원문을 해설하면:

- 1절: 매일 단순하게 믿으며 폭풍 속에서든 믿는다는 것. 비록 작지만 예수를 믿는 것—그것이 전부이다.
 - 2절: 주의 영이 내 마음 속을 밝게 비추네. 주가 인도하시는데 왜 넘어지랴. 예수를 믿는 것—그것이 전부이다.
 - 3절: 내 길이 밤을 때 찬송하고, 그 길이 쓸쓸할 때 기도하며, 위험에 처했을 때 주를 부르코 예수를 믿는 것—그것이 전부이다.
 - 4절: 생명이 있을 동안 주를 의지하고, 세상 지나가까지 주 의지하리니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를 믿는 것—그것이 전부이다.
- 찬송의 대 절 끝과 후렴의 끝부분에 항상 '예수를 믿는 것—그것이 전부이다 (Trusting Jesus, that is all)'로 가사를 맺고 있다.
- 진정 예수님을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탁 세 영' 성도를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다 말마를 거둬하며 신앙생활에 꾸준히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몸이 아물 때 신앙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현 교회 관사님의 전도를 받았는데, 평소 그분의 삶의 태도와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마음이 끌렸던 터라 주저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마음 속에 확신이 들지 않아 아직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 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속 새 (가족부 통신원)

+ 양호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사 65:24)

- 5교구 박모인 성도(남 55세) 지난 2일 간암 수술을 하였고, 3주 후 2차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6교구 이정숙 성도(여 86세) 해당암 진단을 받고 재검사 중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8교구 김경의 집사(여 55세) 담낭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중 지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담당

구역예배를 위한 제안



지난 2000년 9월을 시작으로 100여 구역에 담방을 의뢰하여 40여 구역을 담방했고 35구역을 기사화했다. 상당히 많은 구역에서 원만하게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처음 구역담방을 시작할 때의 취지는 모범 구역예배를 위한 것이었고 좋은 점을 알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역은 기사화 된 구역을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양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 구역으로부터 이유를 들어보았다.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인원 때문이다. '우리 구역은 모여 봐야 두세 명인데...'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성경은 분명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라고 말하고 있다. 구역담방을 한 40여 구역 중에 10여 구역이 기사화 되지 않은 이유는 구역장의 부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이 나가기 때문에 구역장은 좀더 많은 인원을 불러왔지만 평소대로 두세 명만이 와서 참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초의 주간충현의 의도대로라면 바로 이런 구역이아말로 기사화 되어야 한다. 충현의 교인이 어떻게 모든 지역에 골고루 나타나질 수 있는가? 인원이 많은 구역도, 적은 구역도 일일이 마련이다. 적은 인원으로도 낙심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아말로 정말 모범구역 아니겠는가? 그 안에 정말로 주님 이 계심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날씨 때문이다. 눈이 와서 빙판이 생기면 오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 한여름에 더위가 심하면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이 벗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라고 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늦게 더운 중에 웃을 일고, 조심해서 빙판 길을 걷는 정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연세 많으신 한두 명이 이와 같이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구역 전체가 빙판 길을 걷지 말고자 합의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 번째 경우는 주석과 설 등의 공휴일 때문이다. 이 경우는 제법 이유가 타당하다. 오히려 이런 날 구역예배를 드리고자 주장한다면 도리에 어긋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날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들이 아니다. 특히 추석 같은 날은 오히려 우상숭배의 의미가 담긴 날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날 몇 명이 구역예배를 빠지는 것이 라면 이해될 수 있겠으나 구역원들이 합의해서 구역예배를 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일이다.

이런 이유들 외에도 음식 장만과 부담이라든가 장소의 문제 등 구역원들의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모이기를 폐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음식 장만을 하지 않으면 어땠는가? 장소가 협소하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먹으면만 살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음식과 주 예 수와 동행하니 그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리라.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일, 부정한 일을 서로 합의보지 말라. 합리화시키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 (권오섭 기자)

사랑하는 자들아

노영한 (소년부 부장)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심한 꾸지람을 듣는다(막 8:14-21).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개인적 야심에 사로잡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툰다. 또한 예수님 부활 후에도 왕권이 회복되면 한 자리 하라고 기대를 한다(행 1:6). 이들은 평소에도 군중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가리며,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것을 야단치고, 갯세마네 동산에서 피담 흘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잠만 자다가, 예수님이 불갑혀자 모두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손수 매장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겁하게 혼자 처형당하게 두고 한 공의회위원이 매장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제자라고 뽑았던 말인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소년부 교사들이 시작한 마가복음을 공부하다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이런 일들보다 소년부 교사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이들을 막다가 이를 본 예수님이 분노 여겨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라고 크게 꾸짖는 장면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꾸짖는 주님의 책망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형편 없는(?) 제자들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까지 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형편없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능적으로 막는 일은 이전 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교회 주간의 전차 오락실(주일에는 무료 또는 할인), 여름철의 무료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PC방, 조기 교육을 위한 주일 특강, 건물을 위해 주일에 쉬게 하는 부모.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분명 여기시고 꾸짖고 계심을 막 10:14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예전에는 교회학교 학생의 절반이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지만, 지금 한

국교회는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10%이하로 떨어져 교회학교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일이 있다. 주일학교의 부흥없이 30년 후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인구의 도시 대이동도 중단되었고 믿지 않는 성인들의 대부분이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이 있어 성인 전도는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왕따당하는 것이 무서워 친한 친구가 권유하면 쉽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유·초·소년부 교육부의 책임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소년부는 4월 30일 새 천국 초창관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 토요일이면 교회주변 초등학교에 우리 교회 유·초·소년부 교사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본다. 주일 학교에 나가기로 약속한 친구를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교사에게 인도하고, 또 한 친구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다시 학교 안으로 뛰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울지요! 하나님께 이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지 않을까?

지면을 통해 이 시간 록메어 큰 소리로 외쳐본다. 소년부 어린이들에게 드리도록, 소년부의 사랑하는 자들!(벧전 2:11, 벧후 3:1, 요일 4:1, 요삼 1:2-11)



나의 한가지 소원

유미향 (유아부 학부모)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다. 그 당시엔 아마도 뜻도 모른 채 흥얼거려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찬양은 내 마음 속 고백이요 기도가 되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즐겨 부른다. 이 찬양이 동한이와 아현이의 배 순간의 고백이 되길 기도한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앞선다. 조기교육 열풍이 불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해야하는 우리네 아이들...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해주는 게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스스로 신앙고백하

게 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충실히 출석하도록 도와야 한다. 전도사님의 말씀, 선생님들의 기도가 햇빛과 비가 되어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강하게 하리라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동안이 아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을 잊지 못한다.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더불어 동한이와 아현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믿음의 학교에서

타락한 세상, 그리고 심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습니다'(창 6:2).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더 좋게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이는 노아 시대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노아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세상에 사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딤후 3:2-5).

우리의 삶도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능력 있는 존재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철대로 못 잡습니다. 또한 말조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탐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피로하십니다(사 43:24).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창 6:7).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오히려 나타났으며 세상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징벌받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창 6:22).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나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나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 7:1).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으로는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권형익 기자)

